

KIA 왕조 건설? 집토끼 단속+외인 불잡기에 달렸다

올 초 FA 사상 첫 100억 열며 최형우 영입
김민식·이명기로 포수·톱타자 고민 해결
1년 계약 양현종 불잡기 관건...김주찬도 FA
외국인 핵터·버나디나·팻딘도 재계약 대상
뛰어난 성적·우승 프리미엄 연봉 인상 부담

2017 KBO 리그는 KIA 타이거즈의 통합 우승으로 막을 내렸다. 사상 첫 난군매치에서 3연패를 노리는 두산 베어즈를 4승 1패로 제압하고 8년 만에 왕좌에 올랐다. 통산 11번째 우승을 달성했지만 리그 초창기부터 1997년까지는 해태 타이거즈 시절이다. KIA라는 이름으로 21세기 들어서는 두 번째 우승이다. 그 사이 삼성 라이온즈가 7차례, 두산에 비하면 현대 유니콘스와 SK 와이번스가 3차례씩 정상에 올랐던 것을 보면 KIA의 우승은 낮은 모습이다. 2009년 SK와 7차전 승부 끝에 극적인 우승을 거둔 이후 이듬해 2연패는커녕 포스트 시즌 진출조차 실패했다. 2011년 정규시즌을 4위로 마친 뒤 준플레이오프에서 SK에게 탈락을 잡았다. 이후 꾸준한 전력 보강에도 하위권에 머물며 암흑기를 보낸 KIA는 지난 시즌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나서며 희망의 빛을 봤다. 그리고 올해 당당히 정규시즌 1위에 오르며 한국시리즈에 직행했고, 3연패에 도전하는 두산을 상대로 8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KIA는 우승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FA(자유계약선수) 사상 첫 100억원 시대를 열며 우승정부사 최형우를 삼성에서 데려왔다. 해외

진출을 타진하던 FA 양현종을 불잡는데 성공했다. 지난해 성공적인 데뷔 시즌을 보낸 핵터 노에시를 170만 달러에 불잡았다. 팬들에게 사랑 받던 브렛 필 대신 로저 버나디나를 영입했다. 시즌 중 과감한 트레이드로 SK로 부터 이명기를 데려와 톱타자 고민을 해결했다. 김민식은 주전 포수로 성장했다. 후반기 뒷문 불안을 노출하자 자란 구원왕 김세현을 영입했다. 약수이나 한 듯 이들은 정규시즌은 물론 한국시리즈에서까지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양현종과 핵터는 나란히 선발 20승을 올렸고 최형우는 부동의 4번 타자로 이적 첫째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퇴출 위기에 놓였던 버나디나는 리그 적응을 마쳐며 필의 기억을 지웠고, 트레이드를 통해 영입한 3인방은 한국시리즈 우승에 앞도란같은 활약을 했다. 80~90년대 리그를 지배하며 전통의 강호로 군림한 해태 시절의 타이거즈처럼 KIA 역시 이번 우승을 시작으로 새로운 왕조 건설을 꿈꾼다. 배테랑과 신예 선수들이 신구 조화를 이루고, 외국인 선수들 역시 리그에 완벽하게 적응한 모습이다. 지금의 전력을 내내에도 유지한다면 리그 2연패 가능성은 밝다. 관건은 1년 단기 계약에 그쳤던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7 KBO 한국시리즈 KIA타이거즈와 두산베어스의 5차전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KIA 선수들이 김기태 감독을 행개라 쳐고 있다.

양현종을 불잡기가 될 전망이다. KIA는 지난해 최형우(4년 100억원)와 나지완(4년 40억원)에게 거액을 투자하느라 양현종과는 1년 22억원 5000만원에 계약했다.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팀의 우승을 위해 구단의 구애를 외면하지 않았다. 올 시즌 뒤 양현종이 해외 진출 또는 다른 구단으로 이적을 희망하면 적극적으로 돕기로 약속까지 했다. 정규시즌 선발 20승과 함께 한국

시리즈에서 눈부신 역투로 MVP까지 거머쥐며 최고의 한 해를 보낸 양현종은 일단 잔류 의지를 보였다. 양현종은 향후 거취에 대해 "우승을 했기 때문에 구단에서 좋게 신경을 써줄 것 같다. 다른 팀이나 해외보다 KIA라는 팀을 더 생각하고 있다. 구단에서 잘 대우해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단이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면 얼마든지 KIA 유니폼을 계속 입을 의사가 있음을 표현했다. 내년 시즌

에도 팀의 우승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구단 역시 양현종의 진가를 재확인한 만큼 2연패를 위해 양현종 불잡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에 이어 두 번째 FA 자격을 취득하는 김주찬도 공격과 수비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연패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전력이다. 여기에 외국인 선수 3명 모두 재계약 대상이다. 핵터와 버나디나는

두말할 것도 없고, 후반기 에이스 역할을 한 팻딘도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역시나 문제는 돈이다. 많은 선수들이 뛰어난 개인 성적을 거둬 연봉 상승 요인이 분명하다. 여기에 우승 프리미엄까지 더해져 몸값이 크게 될 전망이다. 2009년 우승 뒤 오랜 암흑기를 보낸 KIA가 과거의 이룬 기억을 뒤로하고 왕조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 설치 주목된다.



2017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와 두산베어스의 한국시리즈 5차전 경기 열린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문화광장에서 시민들이 KIA의 11번째 우승에 환호하고 있다.

'8년만의 통합우승' 가지지 않는 여운

KIA 타이거즈의 2017 프로야구 통합 우승의 여운이 이틀째 광주를 휘감고 있다. 학교와 회사는 물론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8년 만에 이뤄낸 타이거즈 우승의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정수기 관리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박영수(30)씨는 지난달 31일 "오전에 6곳을 돌았다"며 "평일 오전 집에 있는 분들 대부분이 가정 주부인데, 하나 같이 어제 야구 봤는지 물어다. 야구를 정말 잘 알고 있는 골수팬도 있었다. 정수기보다 기아 우승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대학교 2학년 조은양(21·여)씨는 "동아리방이나 수업 시간에 만나면 선배들이 모두 야구 이야기만 하고 있다"며 "평소 야구를 잘 모르던 친구들도 이번 한국시리즈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됐다. 기아 팬들이 더 늘어난 것 같다. 우승을 축하하고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재활치료 병원에서 근무하는 최정균(25)씨는 "회원들이 어제 야구 이야기를 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다"며 "직원들은 점심 시간

김태완 전 화순고 감독 "김선빈은 될성부른 나무였다"



"(김)선빈이는 고교 때 부터 될성부른 나무였습니다"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KIA 타이거

한국시리즈 11번째 우승 주역으로 활약한 김선빈을 화순고 시절부터 주목하고 KIA 유니폼을 입혔기 때문이다. 김 전 감독은 "(김)선빈이는 키는 작는데 하체가 단단하고 집중력이 좋은 선수였다"며 "무엇보다 큰 경기, 찬스에 강했다"고 김선빈의 고교시절을 회상했다. 실제 김선빈은 올시즌 타율 1위와 더불어 찬스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 KIA의 정규리그 1위에 공헌했다. 그는 "연습경기를 하면 실수도 많이 하는데 본경기에 들어가면 눈빛이 투사처럼 변했다"며 "내아가수가 투수와 4번타자를 하긴 어려운데 선빈이는 고교시절 그 어려운 걸 해냈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김 전 감독의 김선빈에

대해 노력형 선수라며 근성을 칭찬했다. 김 감독은 "올시즌을 앞두고 선빈이가 학교로 찾아와 후배들과 동계훈련을 같이 했다. 신혼여행도 미루고 후배들과 함께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후배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훈련, 마치고 야구선수 같았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선빈이는 2008년도 입단 당시 KIA에 주전 유격수 이현곤이 있어 주로 2군에서 뛰었지만 이현곤이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할 때 기회를 잡았다"며 "준비되지 않았다면 기회도 잡지 못했을 것이다"고 귀띔했다. 이어 "동계훈련동안 자기 훈련하기도 힘든데 시간을 내 후배들도 지도해 주고 많은 것을 전해주려고 노력했다"며 "한국을 대표하는 유격수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

양현종 스승 김재덕 감독 "한국 야구 기둥이 된 제자 뿌듯"



"양현종이 한국 야구의 기둥으로 성장한 것 같아 뿌듯합니다"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KIA 타이거즈의 11번째 우승 주역 양현종의 스승 광주동성고등학교 김재덕 감독은 30일 환호했다.

의 투지와 우승을 향한 열정이 없었다면 KIA의 우승은 없었을 것이다"며 "제자가 한 팀의 주축을 넘어 한국 야구의 기둥으로 성장한 것을 보니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양현종은 1차전 패배이후 2차전에 선발투수로 나서 9회까지 던지며 1-0 완봉승을 거뒀다. 양현종의 역투를 받판삼은 KIA는 무대를 잠실로 옮겨 내리 3·4·5차전을 승리해 시리즈 전적 4승1패로 한국시리즈 11번째 우승기를 펼쳤다. 김 감독은 "현종이는 어릴 때부터 배짱이 두둑했다"며 고교 시절을 떠올렸다. 그는 "현종이 1년 선배 한기주가 부상으로 인해 결승전 선발투수로 나서지 못했다. 현종이가 갑작스럽게 등판하게 됐는데 (게임)이겠다"며 "당시 2학년이 3학년 타자를 상대로 정면승부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될 선수라는 것을 직감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경기 이후 자만심이 들어 운동을 게을리 했을 수도 있는데 현종이는 오히려 더 열심히 했다. 묵묵히 야구에만 집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의성이 좋고 긍정적인 어려서 큰경기에서 강한 면모를 보였다"며 "경기에 지더라도 남탓 하지 않고 금방 잊어버리고 또다른 경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프로에 가도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고 덧붙였다. 김 감독은 제자의 모교 사람에게 대해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 감독은 "쉬는 날이면 모교를 찾아와 후배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며 "후배들에게 선수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 등을 전해주기 때문에 후배들이 본받고 싶어 한다"고 칭찬했다. 이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양현종을 지도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 한다"며 "제자가 한국야구 역사를 장식했다는 것만으로 감격스럽다"고 말했다.